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송숙의

### 아주 특별한 인터뷰

사진작가 이시우

끊임없이 역사의 현장, 현실에서 대상을 만나고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사물을 만나고 현실을 만나는 사람. 그러다보니 대인지뢰 피해자에게 눈이 가고 민통선이 눈에 들어오고 한강 하구에 눈이 가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즐기기까지 하는 사람... 문화운동 단체에서 5년 넘게 활동가로 일을 해오다가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지뢰' 등 사진 전시회를 열고 같은 제목으로 책도 출판됐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진작가 이시우씨를 12일 방송된 CBS '손숙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표준FM 98.1MHz 평일, 토요일 오후 4시 5분)에서 만나보았다.

정리=이승호 인턴기자

# “民統線엔 우리가 잘 모르는 民痛이 있습니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대인지뢰·고엽제 피해...>

-강화도에 살고 계신데 특별한 연유가 있나요?

“2000년도에 가서 벌써 7년째 살고 있습니다. 2000년에 한강에서 서해로 ‘평화의 배 띄우기’라는 행사를 예술가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한번 행사로 끝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강화에 그동안 애착도 많이 있었고 이참에 아주 좋은 핑계가 생겼으니 한번 내려가 보자 했는데 그게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다 와서 살고 있습니다. 살다보니까 돈을 못 버는 대신 돈을 안 쓸 수 있는 곳이어서 살만하더라고요(웃음).”

-부인은 뭐라고 하시나요.

“지금은 너무 좋아합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은 저와 비슷한 결론에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드세요?

“제가 고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는 직업이 아니라 불규칙하거든요. 혼자 살 때는 한 달에 10만원으로 살았는데 쌀은 고향집에서 농사 지은 것을 1년에 한번 씩 보내주시고 야채 같은 것은 텃밭에서 기르니까 도시처럼 살 생각만 하지 않으면 그런대로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더라고요(웃음).”

-2003년도에 출판하신 ‘민통선 평화기행’이 외국어로도 번역되었죠?

“독일어로는 이미 출판이 되었고 영어로는 곧 될 예정입니다.”

-간단히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통선이라고 하는 곳이 공식적으로는 비무장지대로부터 20km 떨어진 민간인출입통제선인데 이곳에 사는 분들은 사실 후방 지역에서 편안하게 사는 분들의 안보재해를 다 떠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뢰피해자도 많고 고엽제 피해자도 많고 일상적으로 군부대에 끼어 있으니까 모든 생활을 통제받고... 그야말로 인간을 통제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일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민통선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의 생활상을 보고 나니까 ‘정말 통일운동이 필요하고 분단을 극복해야 할 곳이 여기구나’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지요. 그 후 민통선에 여행을 다니면서 쓴 기행문이 ‘민통선 평화기행’입니다.”

-영어권이나 독어권에서는 민통선이나 비무장지대라는 말을 잘 모르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시회에서 강연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작가 등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매우고 있었는데 제 강연회에는 제가 아는 사람 두 분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 만에 외국인들로 가득 차더라고요. 그 전날 거기서



사진=전진환 기자 amin2@nocutnews.co.kr

## 대인지뢰 피해자 보며 ‘통일이 절실한 곳’ 느껴 ‘민통선 평화기행’ 독어판 이어 영문판 곧 출간 사회의 낮은 곳·아픈 곳 찾는 일 계속 하고 싶어

홍보한 것 밖에 없었는데 의외로 ‘한국’그러면 우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미지로 인식해주기 바라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한국전쟁과 비무장지대였더라고요.”

-어느 글에서 보니까 사진이 사치로 다가왔다고 했는데.

“제가 사진학과를 들어가서는 의외로 재미가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수석도 하고 촉망 받는 학생이 됐는데, 19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없는 살림에 장만한 사진기로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이 그때의 분위기로 볼 때는 정말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갈 길은 이게 아니다. 조금더 아래

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다보니까 사진은 저에게 너무나 안 맞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사진을 하게 되셨는데.

“93년도인가 조직이 다 흩어지고 혼자 남게 됐는데 누가 여행이나 한번 가자고 해서 간곳이 마침 철원 평야였어요. 눈 내린 평야에 철책선이 있고 북쪽 지평선 끝으로 철새가 날아가는데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친구 사진기를 빼앗아서 찍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바깥의 풍경과 내 마음의 풍경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대인지뢰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1997년도에 조디 윌리엄스라는 분이 지

뢰반대운동을 해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다음에 맨 처음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그때 그분을 안내해서 지뢰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바깥으로부터의 관심 때문에 지뢰문제에 대해 알게 된 셈입니다. 자기가 의도해서 참전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뢰로 인해 팔이나 다리를 잃어 인생이 다 망가진 거죠. 그런걸 보니까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 하지 않은 이상 서울에서 통일운동을 해도 장밋빛 샴페인만 터트리는 일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나요?

“한번은 지뢰피해로 다리를 잃으신 할아버님을 방문했는데 고맙다고 바래다주시면서 기침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약이라도 사드시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기약을 사드릴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서 그러신 것이었죠.”

-보상금 같은 건 전혀 없나요?

“국가배상법이라고 해서 그런 사고를 당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민통선에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있었던 거예요. 들어갈 때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그 개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각서란게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지만 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쓰게 한 것이죠. 사고가 나는 즉시 민통선이 통제가 돼 마을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면 생계가 1주일 정도 끊기게 되니까 미안해서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에 말도 못하시는 거예요.”

-2004년 유엔사 해체를 위한 걷기명상도 하셨는데.

“제가 비무장지대 사진작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하나를 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참 복합적인 문제다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비무장지대, 민통선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유엔사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이 보초를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주체가 유엔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정부에 알리지 않고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이 유엔사에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군 당시 유엔군 참전 결의를 했잖아요? 그게 종전이 됐으면 무효가 되는 건데 정전상태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효한 거예요. 유엔사 문제가 풀려야지만 작전통제권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또 우리 평화문제까지도 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